

급변하는 양돈업계의 등불이 되는 월간양돈으로 발전되기를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월간양돈이 창간 1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6년간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시기였고 월간양돈은 양돈산업과 함께 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동안 월간양돈을 애독하여 주신 회원과 업계 여러분들, 집필진, 광고주, 인쇄소, 발송업무를 담당한 업체는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데 협력하여 주신 편집위원들과 홍보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최근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양돈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돼지고기의 품질 문제이다. 냉장육의 유통문제와 가공용 원료육의 관리를 위한 미생물과 화학물질의 안전성 등 소비자의 요구와 수입육류의 검사와 맞물려 품질문제에 큰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항균물질 등의 잔류문제는 이제 당면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원료사료의 가격 폭등이다. 옥수수 구입단가가 지난 6월 25일 기준으로 155\$/톤에 달해 지금까지의 배합사료 공급체제로 변화하는 시대

에 부응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합사료는 사료공장의 주도하에 공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영업, 관리, 물류의 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새로운 체제의 필요가 요청되고 있다. 생산자 중심으로 또는 축산물 소비자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이 요청되고 있다.

이번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결정은 이러한 전체 흐름에서 볼때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축산농민의 줄기찬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그간 세정 당국이 반대해 오던 각종 명분들이 무너져 내렸다는데 뜻이 있다.

농가수로는 96%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혜택을 보지만, 전업으로 발전하는 국제화 시대에 정부 당국의 전업화 정책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행된 것은 96%의 축산농가와 앞으로 전업농가에까지 예산을 확보해 확대 실시하겠다는 뜻이

양돈업계는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국내외 각종 첩보를 입수하여 정보화
하고 이를 가공, 저장하고 필요한 회원에
적시에 공급하는 일을 월간양돈이 계속 담당해
나갈 것이다. 물론 정보화 시대에 월간
양돈도 창간 16돌을 맞이하여 새로
운 변화로 회원의 요청에 더욱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크게 환영하는 것이다.

셋째, 원화 환율의 급속한 평가 절상이다. 이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안정된 양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넷째, 식품산업의 혁명적 변화와 유통구조, 소비구조의 변혁과 소비계층의 다양화 등, 양돈농가 개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다섯째로 양돈업계 내부에도 각종 소모성 질병에 의한 피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SEW(격리조기이유 방식) 등 새로운 관리체제가 요청되고, 사료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돈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종돈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는 것 등 일련의 변화이다. 또한 분뇨처리, 시설자동화, 환기 등의 사육환경조절을 위한 시설 등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양돈업계는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국내외 각종 첩보를 입수하여 정보화 하고 이를 가공, 저장하고 필요한 회원에

적시에 공급하는 일을 월간양돈이 계속 담당해 나갈 것이다. 물론 정보화 시대에 월간양돈도 창간 16돌을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로 회원의 요청에 더욱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국제경쟁력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협회는 전국 9개 도청소재지를 순방하며 '양돈경쟁 상대국의 실태조사 연구 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전을 세우고 힘을 안배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우승할 수 있도록 달려갈 뿐이다. 10년후 월간양돈 창간 26주년 기념호는 세계속에 월간양돈으로 발전할 것이고, 우리나라 양돈산업도 내실을 기해 더욱 단단히 알차게 발전되어 있기를 기원한다.